악취나는 지하수, 주민들이 직접 땅 파봤더니…

수십년된 불법 폐기물 가득 '경악'

여수 상암동 일대 주민들, 市에 대책마련 호소
市 "고통은 이해, 사유지 폐기물 처리는 곤란"

여수 상암동 일대 주민들이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로 오염된 지하수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여수시 상암동 작산, 당내, 욱동 등 마을주민들은 "마을에서 1㎞ 떨어진 3만여㎡ 나대지에 양을 알 수 없는 폐기물이 매립돼 지하수가 오염되고,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여수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지난 21일 침출수 발생 여부,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장비를 동원해 땅을 굴착한 결과 불법 폐기물이 다량 매립된 것을 확인, 이 사실을 시에 전달했다.

주민들은 "지하수로 샤워 등을 할 경우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지하수가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로 인해 오염됐다"며 "폐기물은 20여년 전 한 민간업체가 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하다 화재가 발생, 진화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 땅속에 매립됐다"고 주장했다.

폐기물이 묻힌 땅은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최모씨 등 2명의 공동 소유로 알려졌다. 이들 땅 소유자는 폐기물의 매립사실을 모른 채 경매를 통해 땅을 매입했고, 폐기물이 묻혀 있더라도 누가 묻은 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처리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 당시 상황을 잘 알 수 없다"며 "주민들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사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시가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와 주민대표, 땅 소유주가 조만간 자리를 마련해 폐기물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땅 소유자가 처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시와 주민도 난감해 하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시 상암동 주민들이 지난 21일 굴착기를 동원해 폐기물 매립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전남 기초과학기술 혁신 거점 마련됐다

대불산단내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개원

전남도는 22일 대불 국가산업단지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전진기지이며 기초과학기술 혁신 거점 역할을 수행할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개원식에는 박준영 도지사와 김재무 도의회 의장, 고석규 목포대 총장, 송영무 순천대 총장, 교과부 및 각급 기관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 과학기술진흥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기초과학 발전과 과학기술 혁신 및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앞으로 지역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대불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센터는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건축 연면적 1만1530㎡)로 전남의 전략산업인 조선·기자재,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분야에 기초과학 연구 지원과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서남권 중형조선산업혁신센터(목포대 RIC), 한국종합설계 등 17개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연구소 등이 입주해 있다.

또 지역 내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공인 교정기관이 없어 지역 기업이 타 지역에 교정 의뢰하는 실정이었으나 앞으로 센터에서는 KOLAS 교정기관 인정을 통한 지역 내 기업 제품의 국제인증, 수출검사, 품질관리 등의 생산활동에 요구되는 측정기계의 국가 표준 교정 및 시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보환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장은 "지난 5년간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으로 추진해온 기초과학 연구기반 구축사업이 연내 완료되면 2013년부터는 기초연구 지원과 지역 연구개발 조사·분석·기획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연구개발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해 미래산업 창출에도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올 보성차밭 빛축제, 세계 최대 연하장으로…

내달 14일부터… 가로 200m·세로 300m 모형

연말연시를 앞두고 세계 최대 크기의 대형 연하장이 보성 녹차밭에 조성된다.

보성군은 다음달 14일부터 2013년 1월 27일까지 45일간 회천면 영천리 일원에서 '보성차밭 빛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보성차밭 빛축제는 '빛으로 전하는 희망이야기'라는 주제로 그동안의 대형 트리 위주의 축제 이미지에서 벗어나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디자인과 소재, 테마 연출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우선 올해 빛 축제는 ▲참여형 축제 ▲예술 축제 ▲친환경 축제의 3요소를 특화하기 위해 자연경관과 바람, 환경친화적 소재 등을 활용해 국내 대표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군은 차밭 능선에 가로 200m·세로 300m의 세계 최대의 대형 연하장을 형상화하고, 빛의 거리·소원탑·산책로·소원나무·모빌(mobile) 등 화려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대형 연하장은 비닐과 차광막·파이프·조명 등 다양한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 미술의 회화성과 조명을 접목한 새로운 연출로 주·야간의 시각적 볼거리를 극대화한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민물 황금송어, 해수 적응기술 개발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담수어종인 황금송어의 해수 양식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원장 최연수)은 강원도 등지의 산간 계곡에 서식하는 민물 황금송어를 해수에 적응시키는 기술을 개발, 여수 해양수산과학관에서 내년 2월 28일까지 특별전시한다.

황금송어는 일반 무지개 송어를 황금색으로 변이한 종으로 최대 60㎝까지 성장한다. 바다를 회유하는 연어와는 달리 민물에서 일생을 보내는 담수화된 어류로 산간 계곡의 찬물을 좋아해 최적 수온이 15도 전후이고, 온몸을 황금빛으로 장식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냉수성 어종이다.

황금송어가 바닷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민물과는 달리 바닷물에 함유된 염분의 농도를 서서히 높임으로써 환경을 적응시키는 새로운 기술 덕분이다. 이 기술은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고흥지소에서 자연재해 없는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오광록기자 kroh@

여수시, 개방형 감사담당관 공개 모집

여수시가 회계과 직원 공금횡령사건과 관련 공직자 청렴실천을 생활화하고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인 감사담당관을 공개 모집한다.

시는 감사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선발 임용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공개모집 접수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다.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경력직 공무원이나, 외부인사 등이다.

선발시험은 서류 전형과 면접심사로 이뤄진다. 시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내년 1월 임용할 예정이다.

임용기간은 2년으로 근무 실적이 우수하면 총 5년 범위에서 연장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사항은 시 총무과 인사담당(061-690-2123)에게 문의하면 된다.

/ 임문택기자 mtlim@kwangju.co.kr